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6학년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이상권 글 | 유설화 그림 | 웅진주니어 | 212쪽

독서 준비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내용 예측하기
독서	책을 깊이 있게 읽기
독서 후	생각 나누기, 독후활동지, 정리하기



##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개 재판>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세히 묘사해 보세요.

⇨

2) 책의 제목 '개 재판'을 보면,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나요?

⇨

3) 앞표지의 인물들 표정으로 보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

4) 책의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다리를 문 죄로 안락사당할 위기에 처한 흰돌이,  
흰돌이를 구하기 위해 시울이가 변호인으로 나섰다.  
떠돌이 개 떠치와 몸을 바꿔 가며 사건을 추적하던 중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는데……. 안개가 자욱하던  
사건 당일 아침,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윗글을 읽고, 이 책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써 보세요. (책을 읽기 전의 예상과 기대)

⇨

## 어휘력 쑥쑥 키우기 (1)

이름 :

💡 다음은 '재판'과 관련된 낱말들이 지닌 뜻입니다. 각 뜻에 해당하는 낱말들을 아래 제시문에서 찾아 쓰세요.

우리 법정은 피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다. 양쪽 모두 무죄라는 원칙에서 시작하고, 양쪽 모두 대리인인 변호사가 나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면 최종 판결은 배심원 아홉 명이 하게 돼. 대리인들은 참고인이나 증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이번 재판은 사람 대 개의 대결이야.

뜻	낱말
1)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2)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3) 법률상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음.	
4)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승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5)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審理)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	
6)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7)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어휘력 쑥쑥 키우기 (2)

이름 :

💡 다음은 <개 재판>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가) · 게다가 서울이 식구들이 고양이한테는 비교적 관대하게 대했거든.

·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법정에서 어린이가 배심원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더구나.

· “무조건 찬성입니다. 안락사에 찬성요! 반드시 안락사를 관철시켜야 우리 동네가 편안하고, 이 나라가 편안하고, 인류가 편안해집니다. 우리 모두 단결하여 안락사를 관철합시다!”

(나) 더구나 자신은 할머니의 손자이기 때문에, 할머니랑 반대편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만약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할지도 모르고.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세요.

- 관대 : (     )     • 법정 : (     )     • 배심원 : (     )
- 선임 : (     )     • 관철 : (     )

- 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
- ② 친절히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함. 또는 그런 대접.
- ③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審理)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
- ④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냄.
- ⑤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에 들어갈 한자성어를 쓰세요.

□□□□ : 몹시 노하여 펄펄 뛰며 성을 냄.

## 독해력/사고력 (1)

이름 :

💡 다음 <개 재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흰돌이는 일주일 전에 시율이 할머니를 물었어. 엄청 큰 사고를 친 셈이야. 그 일 때문에 양쪽 집 어른들 사이가 서먹서먹해졌거든.

(나) “이건 흰돌이한테 좋은 기회야. 흰돌이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에 참여해야 해. 진실이 밝혀진다면 안락사라는 말이 더 이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지금 흰돌이는 곧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말을 잃어버렸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다) 사람들은 좋은 말로 ‘안락사’라고 하지만 그건 ‘죽는다’는 뜻이잖아? 그것도 개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사람들 마음대로 마치 사형을 시키듯이 죽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를 물었다는 것만으로 죽게 되다니. ㉠만약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1) (가)~(나)에 나타난 재판을 하게 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세요.



□□□가 □□□ □□□를 물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누명을 썼기 때문이다.

2) (다)의 밑줄 친 물음 ㉠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지 ‘흰돌이’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 독해력/사고력 (2)

이름 :

💡 다음 <개 재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날 일어났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해. 왜 흰돌이가 할머니를 물었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할머니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지금 너네 할머니 말만 들었잖아? 그리고 그 누구의 말도 들은 적이 없잖아? 아마 그 사건을 목격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 일단 그 목격자를 찾아야 해.”

(나) 시울이는 냄새도 맡아 보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 가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어. 그러다가 참새들이 모래 목욕한 흔적보다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어.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깔때기처럼 생겼으며 경사가 심했어.

“수지야, 이 웅덩이도 참새 목욕탕이니?” / “와 이건 개미귀신의 함정이야! 개미지옥이라 고도 하지. 와, 너 되게 꼼꼼하다. 난 벌써 몇 번이나 여길 와서 관찰했는데도 몰랐어.”

(다) 수지는 닭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거든. 수지 때문에 닭들은 지난 4년간 한 마리도 사람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았어. 수지가 절대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아무리 흰돌이가 밋다고 해도 수지 얼굴을 봐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냐? 곧장 할머니를 문 거야.”

1) (가)에서 ‘시울이’와 ‘수지’가 ‘흰돌이’를 위해서 하기로 한 일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2) (나)의 사건 현장에서 ‘시울이’와 ‘수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

3) (다)의 밑줄 친 말 ㉠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생각을 써 보세요.

⇨

### 독해력/사고력 (3)

이름 :

💡 다음 <개 재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닭 추장은 다른 닭들에게 바깥을 망보라고 하고는 말을 이었다.

“나는 그날 새벽에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 안개가 낀 날은 그래. 그날 새벽에는 최근 들어 가장 짙은 안개가 내려왔지.”

(나) 참새는 눈을 감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상상해 보라고 했어.

“그날은 아주 안개가 짙은 새벽이었어. 그런 날은 무리해서 날 수가 없어. 나무나 전봇대에 부딪힐 수가 있거든. 우린 수지네 지붕에 앉아서 안개가 열어지기만을 기다렸지. 그런데 시울이 너희 집 쪽에서 누군가 울타리를 넘어오는 거야.”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시울이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

(다) “울타리를 넘은 도둑은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했어. 그 발소리를 들은 흰돌이는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라고 생각했어. 그제 누굴까 하다가 이웃집 할머니를 떠올렸어. 그때 흰돌이는 안심했지. 그러고는 그냥 돌아서라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뭔가 할머니 몸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고는 흰돌이가 곧장 할머니를 문 거야.”

1) (가)~(다)에서 ‘닭 추장’과 ‘참새’로부터 알아낸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p>[정보 1] 그날 새벽에 □□가 아주 짙게 끼었음.</p>	+	<p>[정보 2] □□□ 네 집 쪽에서 누군가 □□□를 넘어 왔음.</p>	+	<p>[정보 3] 그 사람 몸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음.</p>
---	---	---	---	---

2) (가)~(다)의 이야기를 들은 ‘시울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짐작하여 써 보세요.

↳

## 독해력/사고력 (4)

이름 :

💡 다음 <개 재판>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갑자기 유라는 가방에서 탱탱볼을 끄집어냈어. 시울이는 그걸 보자마자 어디서 찾은 거냐고 물었어.

“( )가 찾아 줬어.” 유라는 땅에다 탱탱볼을 몇 번 툭기면서 말했어.

(나) “그곳에는 우리 생각보다 많은 개미귀신들이 살고 있었어. 개미귀신들도 사람들처럼 마을을 이루어서 산대. 약 사십 마리의 개미귀신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날 새벽에 흰돌이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여러 마리였어. 그들은 서로서로 말하려고 했어. 그래서 모든 걸 알아냈어. 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 할머니가…….”

(다) “흰돌이는 신중했어요. 담을 넘어온 사람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접근했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오이를 따다가 뜻밖에도 탱탱볼을 발견했어요. 오이 이파리 밑에 감춰져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어, 우리 유라가 잃어버린 탱탱볼이 여기 있었네!’하고는 손을 쪽 뻗어서 집은 다음 호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걸 본 흰돌이는 상대가 도둑이라고 확신하고 본능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탱탱볼은 흰돌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인데다 조상 대대로 전해 오는 요술 구슬이기 때문입니다. 흰돌이의 100대 할아버지가 천살 먹은 여우랑 싸워서 이긴 다음 선물로 받은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지요. 그걸 누군가 훔쳐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 책을 읽은 내용을 떠올려볼 때, ‘유라’에게 탱탱볼을 찾아 준 사람은 누구인지 (가)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

2) (나)의 줄임표에 이어질 말을 다음 조건에 맞게 써 보세요.

<조건> (나)의 글 흐름에 맞게 (다)의 내용을 반영하여 쓰세요.

⇨

3) (다)에서 ‘흰돌이’가 ‘할머니’를 공격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 사고력/논리력

이름 :

💡 <개 재판>에서 ‘흰돌이 사건’ 배심원들의 다음 판결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타내 보세요.

- 배심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해 봅시다.
- 배심원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써 봅시다.

### ① [정진홍 배심원(정 회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사람과 동물 여러분! 왜 세상이 인간과 동물로 갈라져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개는 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개와 사람이 하는 재판에서 개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이 되지요. 그럼 개들이 사사건건 재판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억 년 동안 이어져 온 대자연의 순리를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 쪽에다 한 표 던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② [배아수 배심원(보건소장)]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반려견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개와 인간 사이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진실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단호하게 개를 처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개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인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③ [교장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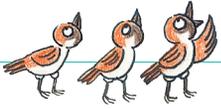
“저는 흰돌이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할머니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개는 그런 상황이면 물어야 합니다. 흰돌이는 자기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박수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할머니 입장도 알겠습니다. 워낙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다 보니 담을 넘을 수도 있고, 손녀딸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탕탱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아이들 건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사건의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만 다치지 않으면 됩니다. 어찌 됐건 흰돌이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물 수도 있습니다. 전 어떤 경우든 아이들이 개한테 물리는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 할머니한테 한 표를 보냅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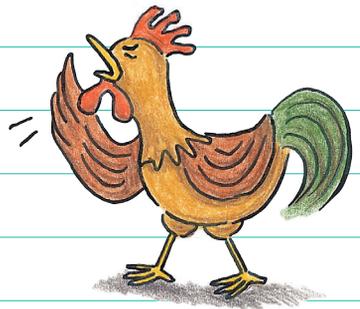
④ [윤형]

“사실 저는 흰돌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수지네 집에 가서 장난으로 흰돌이 얼굴에 비비탄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흰돌이가 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수지가 옆에 없었으면 물렸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흰돌이를 미워하고 무서워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배심원으로 선임되었을 때는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슬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흰돌이는 잘못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흰돌이를 찍었고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⑤ [희진]

“여기 오기 전에는 혼란스러웠는데, 재판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할머니 말만 듣고 흰돌이를 안락사시키려고 했습니다. 흰돌이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람이랑 동물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공정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사람이 아니라 개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답과 해설

3쪽	<p>1) (예시답안) 담장 앞쪽에는 심란한 표정을 한 할머니 한 명과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할아버지 한 명이 나란히 앉아 있다. 그 옆에는 한 손에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옆의 할머니 얼굴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서 있다. 담장 뒤쪽에는 세 마리의 개와 한 명의 여자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데 그중에 흰 개는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고 다른 작은 개 한 마리와 여자아이는 흰 개의 얼굴이 그려진 팻말을 같이 들고 있다.</p> <p>2) (예시답안) 개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에 대하여 개를 재판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다.</p> <p>3) (예시답안) 할머니와 흰 개의 침울한 표정으로 보아, 책의 분위기가 무겁고 진지하게 느껴진다.</p> <p>4) (예시답안) ‘시울’이가 ‘흰돌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던 중 뜻밖의 진실과 마주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야기의 흐름이 흥미진진하고 긴박할 것 같아 호기심이 든다.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기대도 된다.</p>
4쪽	1) 피고 2) 대리인 3) 무죄 4) 법정 5) 배심원 6) 증인 7) 변호사
5쪽	<p>1) ㉠ : ㉡, ㉢ : ㉣, ㉤ : ㉥, ㉦ : ㉧</p> <p>2) 노발대발</p>
6쪽	<p>1) 흰돌이, 시울이 할머니</p> <p>2) (예시답안) 할머니를 몰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도 없이 사람들에게서 안락사를 당한다면 나라도 끔찍하고 싫었을 것 같다.</p>
7쪽	<p>1) (그날 일어났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줄) 목격자를 찾기로 했다.</p> <p>2) 개미지옥(개미귀신)의 함정</p> <p>3) (예시답안) 나도 ㉠처럼 평상시 ‘수지’가 닭들을 잘 지켜주었으므로 ‘수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닭들은 당연히 ‘수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8쪽	<p>1) 안개, 담 / 시울이, 울다리</p> <p>2) (예시답안) 할머니가 대문으로가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수지’네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고 그 사실을 숨긴 할머니에게 실망감이 들었을 것 같다.</p>
9쪽	<p>1) 할머니</p> <p>2) (예시답안) 오이 밭에 떨어진 탕탕볼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고 그걸 본 ‘흰돌이’가 ‘할머니’를 문거였다니 말야.</p> <p>3) ‘흰돌이’는 조상 대대로 전해 오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요술 구슬을 도둑이 훔쳐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p>
10~11쪽	<p>(㉠의 예시답안) • 배심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 : 왜 세상이 인간과 동물로~개는 개일 뿐입니다. / 배심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 : 개와 사람이 하는 재판에서 개가 이기면~사사건건 재판하려고 할 겁니다. • 배심원의 주장에 대한 평가 : 사람의 잘못인지 개의 잘못인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람이 개에게 저서는 안 되므로 사람의 편을 든다는 결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동물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인간에게 없다고 생각한다.</p> <p>※ ㉠~㉥ 각각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의견을 써 보세요.</p>



# 응진 주니어

값 9,500원



9 788901 220390



ISBN 978-89-01-22039-0  
ISBN 978-89-01-03863-6(세트)



KC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